

Effects of Nonviolent Communication Psychodrama o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폭력대화 심리극 효과

Nan Sook Kim¹, Mi-Na Lee²

김난숙¹, 이미나²

¹ *Researcher, Jangseong-gu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Youth Counselor, Korea, sook4474@naver.com*

² *Professor, Welfare Counseling Convergence Department, Kwangshin University, Korea, lmn478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Mi-Na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Referring to the model of Kim Chang-dae, it was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7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 in the control group.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tools were used as research too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conducted using an independent sample t-test.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 o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a pre- and post-matched sample t-test was conducte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onviolent dialogue psychodrama program was effective i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pre- and post-test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atitude. Second, in the program change, the rapport with the participants was well formed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group was high. The program supplemented the disadvantages of the group with difficulty in language communic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language expres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ppeared as strengths of therapeutic element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Non-violent Communication, Psychological Drama,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폭력대화 심리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김창대의 모형을 참조하여 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17명이며,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8명이다. 비폭력대화 심리극에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도구는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사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Received: April 25, 2023; 1st Review Result: May 28, 2023; 2nd Review Result: July 08, 2023
Accepted: July 25, 2023

비폭력대화 심리극은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서 효과가 있었다.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변화에서는 참여대상과의 라포형성이 잘되고 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본 심리극은 언어소통이 어려운 집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언어표현과 감정표현이 치료적 요소의 강점으로 나타났다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비폭력대화, 심리극,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은 9~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며 최근 학령기 아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회에서 다각적 노력과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서 자기·타인이해, 감사성향, 정서지능, 공감능력 향상, 자기개방, 이타성 등에 도움을 주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갈등과 욕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개입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합한 심리치료 방법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또래집단의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와의 깊이있는 소통이 잘 되기 어려워 사실상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자가 연구한 J지역 다문화가정은 전체가족의 10%이상이며, 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소통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계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비폭력대화 심리극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비폭력대화 심리극 집단상담을 참여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최근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광의개념으로는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형태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이주민 가족(유학생, 노동자)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좁은 의미의로는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말한다. 청소년백서(2021)에 의하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 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 사회화는 급속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였고, 그 범위로는 협의의 개념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로만 한정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나[1-3], 국내에는 외국인 가정, 거주하는 모든 새터민 가정을 다문화가정의 범주의

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만9세~24세 청소년 자녀의 연령분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9~11세가 45.8%로 가장 많고, 중학교 학령기인 12~14세가 24.1%,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가 16.4%, 18세 이상이 13.8%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통계청, 2021).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이 다양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매우 예민한 경험을 한다. 특히, 정서지능에는 정서인식 및 표현은 자신·타인이 느끼는 정서 상태 확인하고 고려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는 영역과 감정이입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를 묻는 영역이다. 감사성향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좋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확대시켜 보다 좋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성향이다. 이런 감사는 긍정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않게 하고, 일상적인 즐거움을 잘 알아차려 둔감했던 부분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

심리극은 에너지 간의 균형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심리극 속에 주인공, 보조자아, 이중자아, 역할바꾸기 등을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첫째, 역할 바꾸기에서는 주인공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갈등 관계에서 상대방이 되어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의 인격, 그의 감정, 그의 태도, 그의 존재 양식 그대로 가 되는 경험을 통해 공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

둘째, 이중자아, 보조자아로 심리극의 진행을 도와 집단원이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행위로 옮기며 자기 생각, 느낌, 행동들을 개발, 확장할 수 있다.

셋째, 심리극의 마지막 나누기 단계는 심리극 전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 연출자나, 관객 혹은 보조자아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와 닿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주인공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평가, 비평, 충고, 동정 등이 아닌 자신이 경험한 느낌을 나눈다.

심리극은 개인의 상호환경에서 좌절된 경험이나 미해결된 소망 등 갈등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안에서 회복하며 행위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연극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성장을 하는 집단치료의 한 방법이다[4].

심리극의 집단원은 자신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또한 심리극 표현 방법을 통해 행동화하려는 욕구를 통찰하고 그것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지금·여기로 가져와 감정표현과 동시에 개인의 자기 인식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감정표현과 동시에 개인의 자기 인식을 발달시켜 정서적 갈등을 명백하게 해 준다[5].

집단 참여자들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치료요인으로 꼽고 있다. 자기·타인의 감정, 행동, 동기, 욕구에 대해 통찰한 다음 이를 자기·타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전체적인 자기와 타인의 상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안정된 자기와 타인 상을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국내 연구도 활발히 연구되었는데, 중학생 대상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6],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주인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7], 심리극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8], 역할극 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소년의 공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9], 심리극을 활용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10] 등의 연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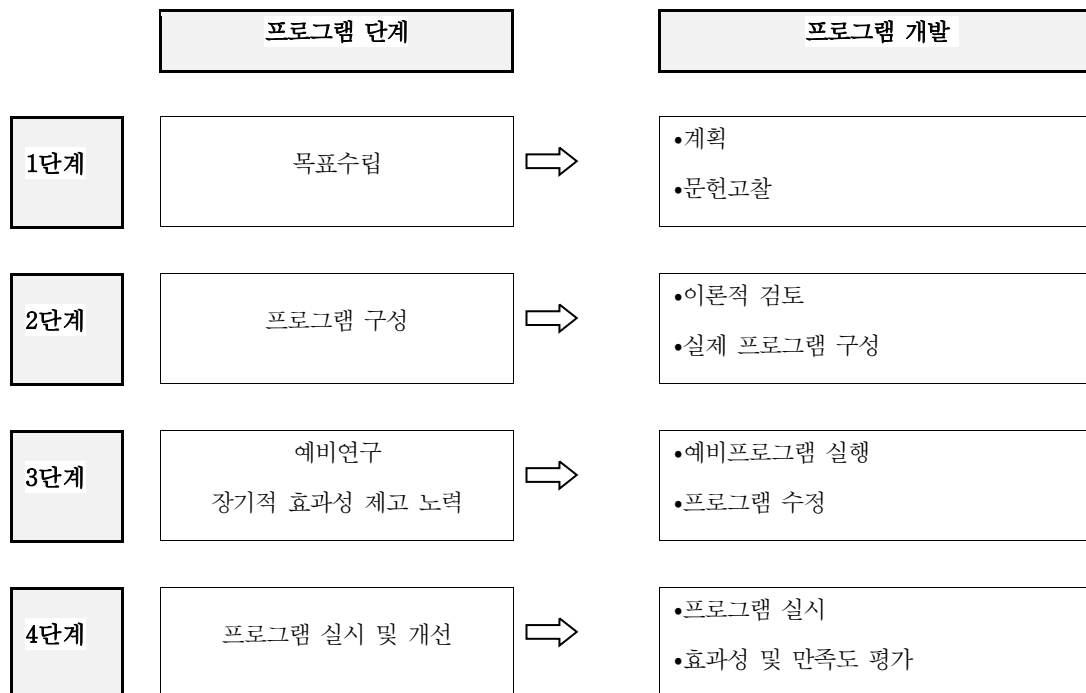
심리극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치료적 효과는 지금-여기 즉시성과 현재성을 통해 다각적으로 자아와 만남으로 자아 강화와 순발력을 경험하여 충동성 및 공격성 감소, 우울·불안 감소, 대인관계기술향상, 자신과 타인의 행동화 문제에 대한 통찰 및 공감능력 향상, 자유로운 감정표현 및 감정정화, 정서적 갈등 해소를 통해 정서지능 향상, 능동적인 갈등 해결 방식 향상,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가족의 재구조화, 가치관 확립, 희망의 고취 등을 통한 감사성향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심리극 집단상담은 치료적 경험이 될 수 있고, 구술적 표현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신체적인 동작을 통하여 신체적 언어로써 구술표현을 대체하여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심리극은 정서적 갈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잠재력(창의력, 자발성, 유머감각 등) 발달에도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비폭력대화 심리극 개발

3.1 프로그램 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교육 모형으로 김창대 외[11] 모형을 참조하여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한 4단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림 1] 프로그램 절차

[Fig. 1] Program Procedure

3.2 프로그램 개요

비폭력대화 심리극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내용

[Table 1] Program Content

회기 60분	주제	하위영역	활동내용
준비	사전설문지 작성	준비단계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문지 소개 및 작성하기
1	자기개방	공감인지 상상하기 조망취하기	오리엔테이션(집단 규칙)
			별칭 짓기와 자기소개 게임 ‘뒤로 넘어지기’(변화된 나 상상하기)
			마음나누기
2	자기 이해	정서공감 정서인식 공감능력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난 네가 궁금해! 궁금해!’(느낌을 몸으로 말해요) 심리극 체험하기
			마음나누기
3	자기 재발견	정서인식 감정이입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가족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을 심리극 꾸미고 실연하기
			마음 나누기
4	가족갈등 이해	감사대상 인식표현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갈등상황 가족 조각하기, 갈등상황 심리극 꾸미기
			마음 나누기
5	가족조각	감사정서 체험 욕구이해	전 회기요약 및 준비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거울 놀이, 가족 조각품 만들기
			마음 나누기
6	불안 이해	공감하기 불안이해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벽 뚫기 게임 활동, ‘좋아해요, 뭐라고요?’
			마음 나누기
7	또 다른 나 자기개방	정서활용 느낌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시간여행, 주인공선정으로 심리극 시연
			마음 나누기
8	인간관계갈등 이해	정서사고 촉진 욕구알기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역할바꾸기 기법 활용, 갈등상황을 조각하여 역할 바꾸기 영킨실타래풀기’소통경험하기
			마음 나누기
9	자기표현	불안해소 조망취하기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상상기법으로 친구 만들기, 조각기법으로 친구와의 만남 심리극 꾸미고 실연하기
			마음 나누기
10	이별 감정 다루기 및 마무리	정서활용 공유단계	전 회기요약 및 준비 활동, 과제 점검 및 규칙 읽기
			‘함께 일어나기’, 빈 의자기법으로 행동화 연습 및 이별 감정 다루기
			마음 나누기

3.3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실험집단에 제공한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 1인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는 공지와 같은 순으로 본 프로그램 지침서대로 이행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참가자 모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반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방법

4.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한 느낌, 감정,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타인·상황·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공감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17명이다.

[표 2] 연구대상

[Table 2] Subject of Research

전체	성별		학년	
	남학생	여학생	5학년	6학년
실험집단(N=9)	4	5	2	7
통제집단(N=8)	3	5	3	5

4.3 실험설계

[표 3] 실험설계

[Table 3] Experimental Design

집단	사전검사	실험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₃
통제집단	O ₂		O ₄

O₁, O₂: 사전검사, O₃, O₄: 사후검사, x: 비폭력대화 심리극

4.4 연구도구

4.4.1 공감능력 척도

아동·청소년의 공감능력 척도는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인지적 공감 척도(조망취하기 Chonbach's α .80, 상상하기 Chonbach's α .78, 공감적 관심 Chonbach's α .81)[12], 정서적 공감 척도(공감적 각성 Chonbach's α .77, 공감적 관심 Chonbach's α .75)이다[13][14]. 공감능력 척도는 총 30문항이며, 인지적 공감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이며, 정서적 공감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4.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et., al.[15]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기초하여 Moon[16]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검사이다. 본 검사는 감정이입 Chonbach's α .74로 8문항, 정서인식 및 표현 .75로 8문항, 정서의 사고촉진 Chonbach's α .82로 8문항, 정서활용 Chonbach's α .79로 8문항, 정서조절 Chonbach's α .69의 8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4.3 감사성향 척도

감사성향[17]은 GQ-6(The Gratitude Questionnaire), GRAT(The Gratitude, Resentment, Appreciation Test), Appreciation Scale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내적일치도는 Chonbach's α .83이며,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청소년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감사성향 척도는 전체적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며, 감사인식은 .88과 감사경향성은 .85이다.

5. 연구 결과

5.1 양적연구 결과

5.1.1 사전 동질성 공감능력 결과

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공감능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통제집단 간 공감능력 동질성

[Table 4] Homogeneity of Empath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분		공감능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96.22	13.64	-.047(0.963)
	통제집단	8	96.50	10.28	

두 집단 간 동질성 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96.22)(SD=13.64)·사전 통제집단(M=96.50)(SD=10.28) 검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에 집단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정서지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실험·통제집단 간 정서지능 동질성

[Table 5] Emotional Intelligenc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분		정서지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136.11	18.91	0.065(0.949)
	통제집단	8	135.50	20.12	

[표 5]과 같이 정서지능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136.11)(SD=18.91)·사전 통제집단(M=135.50)(SD=20.12) 검정결과에서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정서지능에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이 입증되었다.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감사성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실험·통제집단 간 감사성향

[Table 6] Gratitud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7)

구분		감사성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사전	실험집단	9	101.55	10.87	-.612(0.550)
	통제집단	8	106.12	19.26	

[표 6]과 같이 감사성향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결과는 독립표본 t검증 사전 실험집단(M=101.55)(SD=10.87)·사전 통제집단(M=106.12)(SD=19.26)의 검정결과에서 감사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감사성향에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이 입증되었다.

5.1.2 공감능력에 대한 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공감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감능력 [표 7]의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통계량 사전 (M=96.22)(SD=13.64)·사후(M=103.33)(SD=10.71)와 통제집단의 기술통계량 사전(M=96.50)(SD=10.28)·사후(M=98.87)(SD=9.21)를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6.130$, $p=0.000$ 으로 유의수준 $***p<.001$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집단간 공감능력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Empathy Between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구분		공감능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96.22	13.64	-6.130(0.000)***
	사후	9	103.33	10.71	
통제집단	사전	8	96.50	10.28	-3.252(0.014)*
	사후	8	98.87	9.21	

*p<.05, ***p<.001

[표 8] 공감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 8]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Multivariate Analysis on Empathy

변인	Wilks의 람다	F	p
측정시기	.351	15.023	.000
집단	.206	12.210	.002
측정시기*집단	.342	24.124	.000

[표 8]에서처럼 공감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5.023$, $p<.001$), 집단($F=12.210$, $p<.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24.124$,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극 프로그램이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 정서지능에 대한 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정서지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9] 집단 간 정서지능 비교

[Table 9] Emotional Intelligence Comparison Between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구분		정서지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136.11	18.91	-7.938(0.000)***
	사후	9	146.33	17.61	
통제집단	사전	8	135.50	20.12	-1.018(0.342)
	사후	8	136.62	20.55	

***p<.001

[표 9]에서와 같이 정서지능의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 통계량 사전($M=136.11$)

(SD=18.91)·사후(M=146.33)(SD=17.61)와 통제집단의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사전(M=135.50)(SD=20.12)·사후(M=136.62)(SD=20.55)와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7.938, p=0.000$ 으로 유의수준 $***p<.001$ 을 기준으로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10]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Multivariate Analysis on Emotional Intelligence

변인	Wilks의 람다	F	p
측정시기	.225	10.520	.000
집단	.088	22.322	.000
측정시기*집단	.139	34.462	.000

[표 10]에서처럼 정서지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0.520, p<.001$), 집단($F=22.322, p<.0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34.462,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극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4 감사성향에 대한 효과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감사성향이 향상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측정 도구의 설문지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증을 하여 아래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감사성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11] 집단 간 감사성향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Gratitude Propensity among Groups (실험집단 N=9, 통제집단 N=8)

		감사성향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실험집단	사전	9	101.55	10.87	-6.181(0.000)***
	사후	9	112.55	7.77	
통제집단	사전	8	106.12	19.26	-1.000(0.598)
	사후	8	106.50	18.29	

*** $p<.001$

[표 11]과 같이 감사성향은 실험집단의 대응표본 t검증 기술 통계량 사전(M=101.55)(SD=10.87)·사후(M=112.55)(SD=7.77)와 통제집단의 기술 통계량 사전(M=106.12) (SD=19.26)·사후(M=106.50) (SD=18.29)와 차이 비교 검정하여 분석한 결과 $t=-6.181, p=-0.000$ 으로 유의수준 $***p<.001$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2] 감사성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

[Table 12] Results of Repeated-Measurement Multivariate Analysis on Gratitude Propensity

변인	Wilks의 랏다	F	p
측정시기	.351	15.023	.000
집단	.206	12.210	.002
측정시기*집단	.342	24.124	.000

[표 12]에서처럼 감사성향에 대한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시기($F=15.023$, $p<.001$), 집단($F=12.210$, $p<.01$), 측정시기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24.124$,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극 프로그램이 감사성향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17명을 대상으로 비폭력대화심리극이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상담을 10회기 실시하였고 SPSS 25.0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증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에 관한 상담효과 요인은 집단상담을 참여하면서 집단원들은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면서 정서적 재정화를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실존적 요인과 집단원들과의 일반화 경험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정서지능에 대한 상담효과 요인은 상담증기에서 거울놀이, 가족조각, 빈의자기법 등으로 원가족과의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통찰을 경험하고 깊은 정서적 수준을 이해하여 정서지능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감사성향에 대한 상담효과 요인은 집단상담을 참여하면서 외로웠던 자기를 안아주고, 마음속 깊은 불안을 이해하고 집단원의 상호관계를 서로묘사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여 공감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본 프로그램 연구는 집단원끼리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내적,외적 행위로 몸을 이용한 동작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과거 미해결된 과제를 지금-여기로 가져와 행동화하는 것으로 비폭력대화인 기린의 언어로 표현하여 감사성향, 공감능력,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나와 타인의 상황에서 느낌, 감정, 욕구를 알아차림하고 갈등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공감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비폭력대화 심리극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에서 공감능력, 정서지능, 감사성향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심리극을 통해 집단원은 자신의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며 또한 심리극을 통해 행동화하려는 욕구를 통찰하고 그것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지금-여기로 가져와 감정표현과 동시에 자기인식과 감정표현을 동시에 나타내고 정서적 갈등을 알게 한다는[5]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심리극은 개인의 상호환경에서 좌절된 경험이나 미해결된 소망 등 갈등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하여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 안에서 회복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연극적인 방법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가는 집단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진행된 연구이며, 대상의 참여자가 소수집단인 점을 감안할 때

비폭력대화 심리극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제한합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비폭력대화 심리극의 필요성에 근거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상담장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J. S. Kim,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Inh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 [2] M. S. Lee, The Effects of Adolescents' Digital Citizenship on Social Capital: The Mediation Effect of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h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 [3] J. H. Jang,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Identity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2)
- [4] R. Moreno, R. E. Mayer, Cognitive principles of multimedia learning: The role of modality and contigu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99), Vol.91, No.2, pp.358-368.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91.2.358>
- [5] A. Blatner, *Foundations of psychodrama: Histor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1987)
- [6] M. I. Kang, M. Jung,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Stability of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 Vol.9, No.2, pp.541-554.
DOI: <https://doi.org/10.22143/HSS21.9.2.44>
- [7] H. E.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otagonist Experience of Psychodramatis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21)
- [8] G. Y. Lee, The Effects of Psychodrama on Self-Concept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14)
- [9] H. H. Back, The Effect of Role-Play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Juveniles Probation, Kyungsu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4)
- [10] M. N. Shim,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Using Psychodrama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Mokpo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3)
- [11] C. D. Kim, H. S. Kim, H. S. Kim, E. J. Shin, S. H. Lee, H. N. Choi,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and psychoeducational programs, Seoul: Hakjisa, (2019)
- [12]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 Vol.10, p.85.
- [13] B. K. Bryant,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1982), Vol.53, No.2, pp.413-425.
DOI: <https://doi.org/10.2307/1128984>
- [14]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uneums, (1997)
- [15]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0), Vol.9, No.3, pp.185-211.
DOI: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16] Y. L. Moon, A study on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ment programs for character education, *sadaenonchong*, (1999), Vol.59, pp.31-98.
- [17] K. H. Lim,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audit research, *Counseling Evaluation Research*, (2009), Vol.2, No.2, pp.47-60.